

경제 및 고용 동향

◆ 2008년 8월 생산-증가세 크게 축소, 소비-증가세 둔화, 투자-증가세 지속

○ 2008년 8월 광공업 생산은 전년동월대비 1.9% 증가에 그쳐 2007년 9월(-3.1%) 이후 11개월 만에 가장 낮은 증가율을 보였으며, 증가세(8.6%→1.9%)도 크게 축소됨. 서비스업 생산 또한 전년동월대비 1.6% 증가에 그쳐 증가세(3.9%→1.6%)가 둔화된 것으로 나타나 산업생산이 내수부진과 수출둔화 등으로 부진을 면치 못하는 것으로 나타남.

- 제조업 생산은 영상음향통신(18.3%), 반도체 및 부품(5.5%), 기타 운송장비(22.3%) 등을 중심으로 증가한 반면, 자동차(-9.2%), 식료품(-4.8%), 컴퓨터(-19.8%) 등에서는 감소함.

- 서비스업 생산은 금융 및 보험업(7.0%),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5.2%), 오락·문화·운동관련 서비스업(4.2%), 도소매업(3.8%) 등을 중심으로 증가한 반면, 부동산 및 임대업(-14.8%), 기타 공공·수리 및 개인서비스업(-4.9%), 교육서비스업(-0.8%)에서 는 감소함.

○ 2008년 8월 소비와 투자는 전년동월대비 각각 1.5%, 1.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소비재 판매는 승용차, 가공식품 등의 내구재(-3.9%) 판매가 감소하였으나 비가공식품, 의복·직물 등 준내구재(9.5%)의 판매 호조로 전년동월 대비 1.5% 증가하였으나 그 증가세는 둔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설비투자는 운수장비 투자는 감소하였으나 전기 및 전자기기 등 기계류의 투자 증가에 힘입어 전년동월대비 1.6% 증가하여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현재의 경기를 나타내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99.5로 전월보다 0.2p 하락하였으며, 향후의 경기국면을 예고해 주는 선행지수 전년동월비도 전월대비 0.4%p 하락한 것으로 나타나 경기동행지수 순환변동치 및 선행지수가 전년동월대비 7개월째 동반 하락세를 보임(그림 3 참조).

◆ 2008년 9월 소비자물가 상승세 둔화(전년동월대비 5.1% 상승)

○ 2008년 9월 소비자물가는 전년동월대비 5.1% 상승하였음. 이 중 공업제품과 서비스는 전년동월대비 각각 9.3%, 3.9% 상승한 반면, 농축산물은 0.9%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으며, 생활물가지수는 전년동월대비 5.5% 상승함.

- 2008년 9월 소비자물가는 전월대비 0.1% 하락하였는데, 이는 농산물, 석유류가 전월대비 각각 0.5%, 4.7% 하락함으로써 물가상승세가 둔화된 것으로 나타남.

〈표 1〉 최근 경제일반 동향

(단위 :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2006					2007					2008				
		1/4	2/4	3/4	4/4	연간	1/4	2/4	8월	3/4	4/4	연간	1/4	2/4p	7월p	8월p
생산	산업생산	12.8	11.5	11.3	5.2	10.1	4.0	7.0	8.8	6.0	11.0	6.8	10.6	8.6	8.6	1.9(-2.6)
	제조업 생산	13.4	12.1	11.8	5.6	10.5	4.1	7.1	9.1	6.1	11.2	7.0	10.7	9.0	8.7	8.7(-2.4)
	출하	9.7	9.0	9.2	3.8	7.8	5.1	7.2	7.2	5.5	10.6	7.1	8.9	6.4	8.2	2.0(-2.6)
	수출	13.1	14.2	15.7	5.6	11.9	6.7	9.9	11.0	9.4	16.2	10.5	14.3	13.6	12.6	6.7(-4.7)
	내수	7.1	4.9	3.8	2.2	4.5	4.1	4.9	4.6	2.7	6.8	4.8	5.3	1.8	5.1	-1.3(-6.7)
	서비스업 생산	6.2	5.4	4.5	4.8	5.2	5.4	6.4	7.7	7.2	6.8	6.4	6.4	4.6	3.9	1.6(-1.2)
소비	소비재 판매	5.3	6.1	2.9	4.5	4.7	5.7	5.2	5.8	7.1	4.5	5.3	3.9	2.5	3.9	1.5(0.1)
투자	설비투자	6.2	6.7	11.8	5.1	7.4	12.8	12.1	3.5	0.7	9.2	8.6	-0.9	0.1	9.9	1.6(0.1)
물가		2.0	2.3	2.5	2.2	2.2	2.1	2.4	2.3	2.3	3.3	2.5	3.8	4.8	5.6	5.1(-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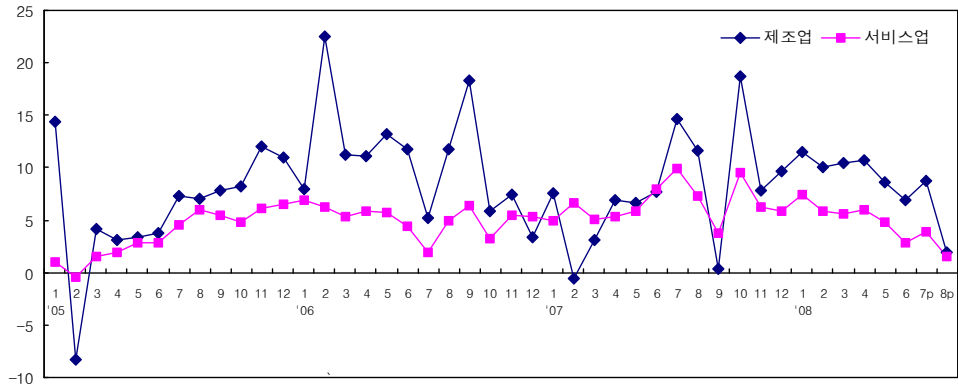
주 : p는 잠정치임. ()안은 전월대비를 나타냄.

- 1) 광공업 생산은 광업(C), 제조업(D), 전기·가스업(E, F)을 포함하나 거의 대부분 제조업을 대변함.
- 2) 서비스업 생산지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제8차 개정, 2000. 1. 7.)상의 20개 대분류 중 서비스업에 해당되는 11개(도소매업(G), 숙박·음식점업(H), 운수업(I), 통신업(J), 금융 및 보험업(K), 부동산 및 임대업(L), 사업서비스업(M), 교육서비스업(O), 보건복지사업(P), 오락·문화 및 운동관련 서비스업(Q), 기타 공공·수리 및 개인서비스업(R)) 산업을 포괄.
- 3) 물가는 8월, 9월 기준임.

자료 : 통계청, 『산업활동동향』, 『서비스업활동동향』, 각호.

[그림 1] 제조업 및 서비스업 생산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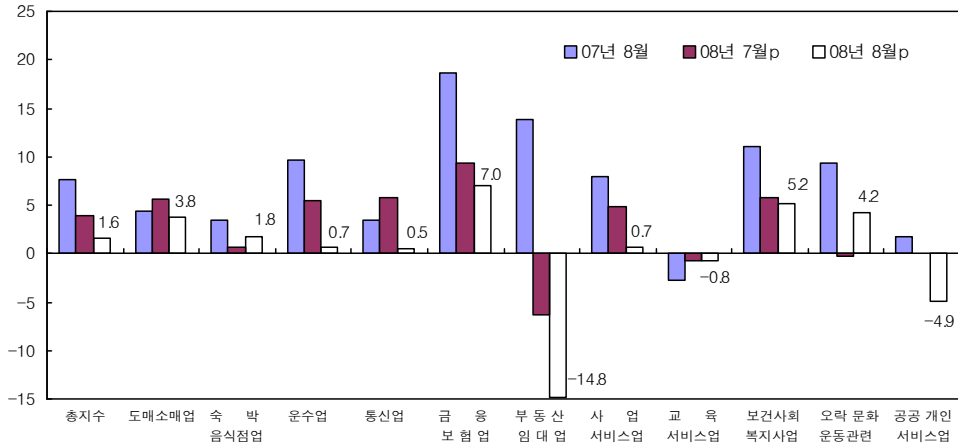
(단위 :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주 : p는 잠정치임. 서비스업 활동지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서비스업에 해당하는 대분류 11개 품목임.
 자료 : 통계청, 『2008년 8월 산업활동동향』, 2008. 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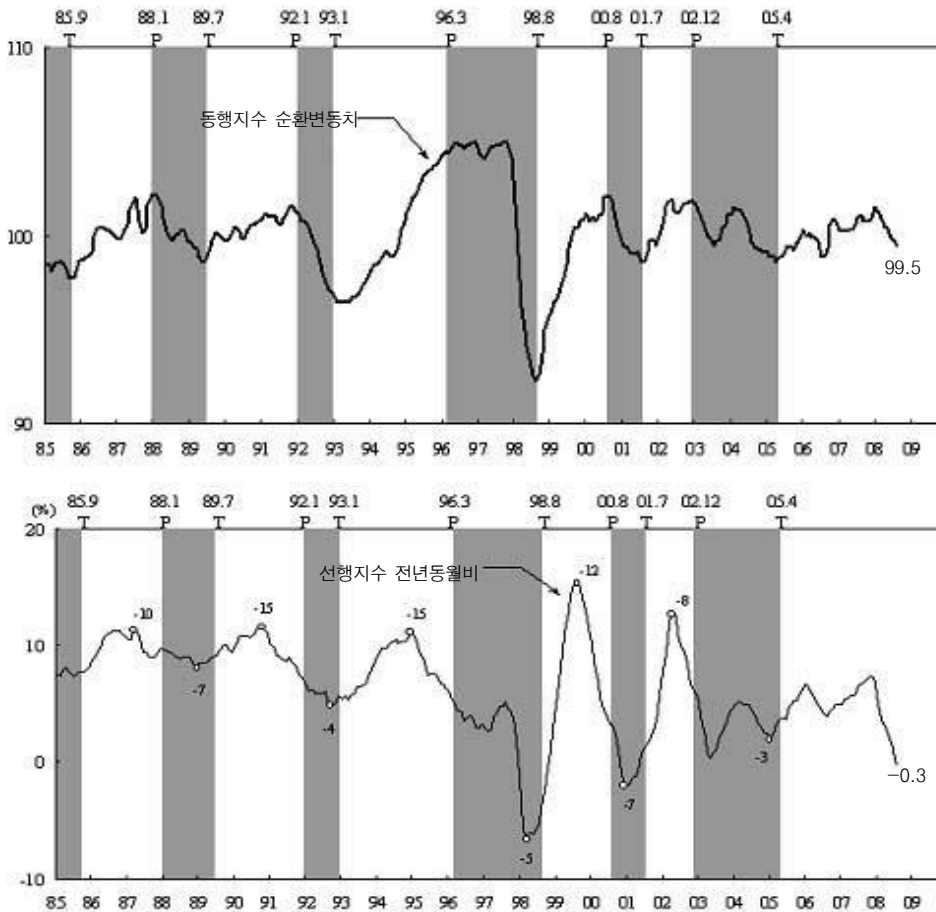
[그림 2] 서비스업 업종별 생산추이

(단위 :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주 : p는 잠정치임.
 자료 : 통계청, KOSIS.

[그림 3] 경기지수 동향



주 : p는 정점(Peak), T는 저점(Trough)을 나타냄.
 자료 : 통계청, 『2008년 8월 산업활동동향』, 2008. 9.

(김복순 동향분석팀 책임연구원)

◆ 경활참가율과 실업률 감소

- 2008년 8월 중 경제활동인구는 24,380천 명으로 전년동기대비 167천 명(0.7%) 증가
 - 남성 경제활동인구는 14,289천 명으로 112천 명(0.8%) 증가하였으며, 여성은 10,092천 명으로 55천 명(0.5%) 증가함.
- 2008년 8월 중 경제활동참가율은 61.5%로 전년동기대비 0.2%p 하락
 - 성별로 보면 남성(73.8%)이 전년동기대비 0.4%p, 여성(49.7%)이 전년동기대비

0.2%p 하락함(그림 4 참조).

○ 2008년 8월 중 고용률은 59.6%로 전년동기대비 0.2%p 하락

- 남성의 고용률은 71.2%로 전년동기대비 0.3%p 하락하였고, 여성의 고용률은 48.5%로 각각 전년동월대비 0.1%p 하락하였음.

〈표 2〉 최근의 고용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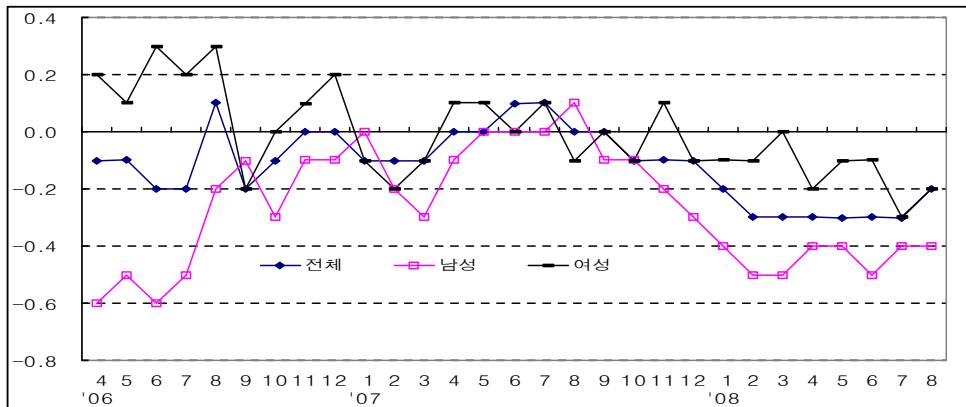
(단위: 천 명, %)

	2007					2008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1/4분기	2/4분기	3/4분기	
				8월	9월			7월	8월
경제활동인구	23,692 (0.9)	24,489 (1.1)	24,367 (1.1)	24,214 (1.0)	24,316 (1.0)	23,852 (0.7)	24,638 (0.6)	24,673 (0.5)	24,380 (0.7)
참가율	60.8	62.6	62.1	61.7	61.8	60.5	62.3	62.3	61.5
취업자	22,841 (1.2)	23,698 (1.2)	23,610 (1.3)	23,458 (1.3)	23,582 (1.2)	23,051 (0.9)	23,871 (0.7)	23,903 (0.6)	23,617 (0.7)
고용률	58.6	60.6	60.2	59.8	60.0	58.5	60.4	60.3	59.6
실업자	851	791	756	756	734	801	767	769	764
실업률	3.6	3.2	3.1	3.1	3.0	3.4	3.1	3.1	3.1
비경제활동인구	15,305 (1.4)	14,647 (1.0)	14,865 (1.0)	15,018 (1.0)	15,000 (1.3)	15,575 (1.8)	14,903 (1.7)	14,949 (2.0)	15,277 (1.7)

주: ()안의 수치는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고용률 = 취업자 / 생산가능인구*100
 자료: 통계청, 『2008년 8월 고용동향』, 2008. 9.

〔그림 4〕 성별 경제활동참가율 증가

(단위: %p, 전년동기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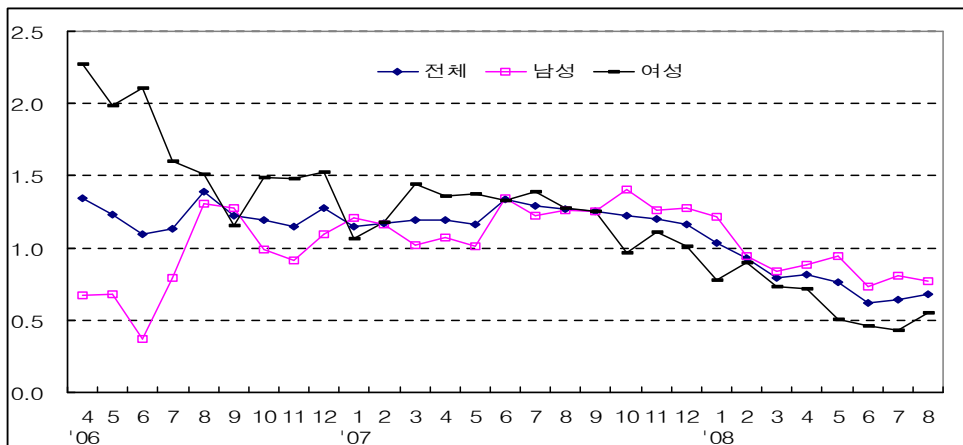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KOSIS.

- 2008년 8월 중 취업자는 23,617천 명으로 전년동기대비 159천 명(0.7%)이 증가함.
 - 성별로 보면 남성 취업자는 13,780천 명으로 전년동기대비 105천 명(0.8%), 여성 취업자는 9,837천 명으로 전년동기대비 54천 명(0.6%)이 증가함.
- 2008년 8월 중 실업자는 764천 명으로 전년동기대비 7천 명(1.0%) 증가하였으며, 실업률은 3.1%로 전년동기와 같음.
 - 남성 실업자는 509천 명으로 전년동기대비 7천 명(1.4%) 증가하였고, 여성 실업자는 255천 명으로 전년동기와 동일함.
 - 실업률은 남성이 3.6%로 전년동기대비 0.1%p 상승하였고, 여성은 2.5%로 전년동기대비 변동이 없음.
- 2008년 8월 중 비경제활동인구는 15,277천 명으로 전년동기대비 259천 명(1.7%) 증가
 - 남성 비경제활동인구는 5,068천 명으로 전년동기대비 126천 명(2.5%) 증가하였고, 여성 비경제활동인구는 10,209천 명으로 전년동기대비 133천 명(1.3%)이 증가함.
 - 비경제활동인구 중 정규교육기관 통학, 입시학원 통학, 취업을 위한 학원·기관 통학을 포함하는 '통학'은 4,206천 명으로 120천 명(2.9%), 비통학 취업준비는 388천 명으로 51천 명(15.1%) 증가한 반면, 특별한 사유 없이 그냥 쉬었다고 응답한 '쉬었음'은 1,345천 명으로 전년동기대비 31천 명(-2.3%) 감소함.

[그림 5] 성별 취업자 증가율

(단위: %, 전년동기대비)



자료: 통계청 KOSIS.

◆ 건설업,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취업자 감소세 지속

- 2008년 8월 중 산업별 취업자의 전년동기대비 증감을 보면,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304천 명, 4.0%)에서 증가한 반면,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50천 명, -0.9%), 농림어업(-35천 명, -1.9%), 제조업(-33천 명, -0.8%), 건설업(-27천 명, -1.5%), 전기·운수·통신·금융업(-7천 명, -0.3%)에서는 감소함.
 -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의 증가 추세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임.
 - 2007년 하반기 이후 건설업의 감소세가 지속됨(그림 6 참조).

◆ 상용근로자의 취업자 증가 지속

- 2008년 8월 중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 중 비임금근로자는 7,514천 명으로 전년동기대비 62천 명(-0.8%) 감소하였고, 임금근로자는 16,104천 명으로 전년동기대비 221천 명(1.4%) 증가
 - 임금근로자 중 상용근로자(344천 명, 3.9%)는 증가한 반면, 임시근로자(-74천 명, -1.5%) 일용근로자(-48천 명, -2.3%)는 감소함.
 - 상용근로자는 증가세를 이어가며 임금근로자의 증가를 주도하고 있으며, 임시근로자 및 일용근로자의 감소세가 지속됨(그림 7 참조).
- 2008년 8월 중 취업시간대별 취업자를 보면, 36시간 미만 취업자는 5,068천 명으로 전년동기대비 136천 명(2.8.0%)이 증가한 반면, 36시간 이상 취업자는 17,784천 명으로 57천 명(-0.3%)이 감소함.

◆ 20대, 40대, 50대 및 고졸 이하 실업자 증가

- 2008년 8월 중 연령계층별 실업자 및 실업률은 20대, 40대, 50대에서 증가한 반면, 그 외 연령계층에서는 소폭 감소함.
 - 2008년 8월 중 연령별계층별 실업률은 20대, 50대에서 상승하였고, 30대는 변동이 없었으며, 그 외 연령계층에서는 하락함.
 - 교육정도별 실업자는 전년동기대비 중졸(10천 명), 고졸(4천 명)에서 증가한 반면, 대졸 이상(-7천 명)에서는 감소함.
 - 교육정도별 실업률은 전년동기대비 중졸 이하(2.1%, 0.2%p), 고졸(3.8%, 0.1%p)에서 증가한 반면, 대졸 이상(3.0%, -0.3%p)에서는 감소함.

〈표 3〉 산업별 취업자

(단위: 천 명, %)

	2007					2008			
	1/4분기	2/4분기	3/4분기	8월	4/4분기	1/4분기	2/4분기	3/4분기	
								7월	8월
전 산업	22,841 (1.2)	23,698 (1.2)	23,610 (1.3)	23,458 (1.3)	23,582 (1.2)	23,051 (0.9)	23,871 (0.7)	23,903 (0.6)	23,617 (0.7)
농림어업	1,450 (-2.8)	1,900 (-2.7)	1,866 (-3.7)	1,864 (-3.7)	1,690 (-3.8)	1,388 (-4.3)	1,848 (-2.7)	1,824 (-2.3)	1,830 (-1.9)
제조업	4,138 (-1.2)	4,126 (-1.3)	4,093 (-1.2)	4,052 (-1.5)	4,120 (-0.9)	4,114 (-0.6)	4,101 (-0.6)	4,097 (-0.7)	4,020 (-0.8)
건설업	1,772 (2.7)	1,934 (1.6)	1,843 (-0.3)	1,822 (-0.8)	1,853 (-0.5)	1,754 (-1.0)	1,896 (-2.0)	1,829 (-1.4)	1,795 (-1.5)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5,743 (-1.0)	5,715 (-1.0)	5,722 (-0.2)	5,699 (0.3)	5,723 (-0.3)	5,707 (-0.6)	5,673 (-0.7)	5,737 (-0.8)	5,649 (-0.9)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 및 기타	7,357 (4.3)	7,606 (4.8)	7,674 (5.2)	7,613 (5.0)	7,762 (5.0)	7,684 (4.4)	7,924 (4.2)	8,000 (3.9)	7,917 (4.0)
전기·운수·통신 및 금융업	2,363 (2.8)	2,400 (3.3)	2,396 (2.5)	2,389 (2.5)	2,415 (1.8)	2,385 (0.9)	2,410 (0.4)	2,392 (-0.4)	2,383 (-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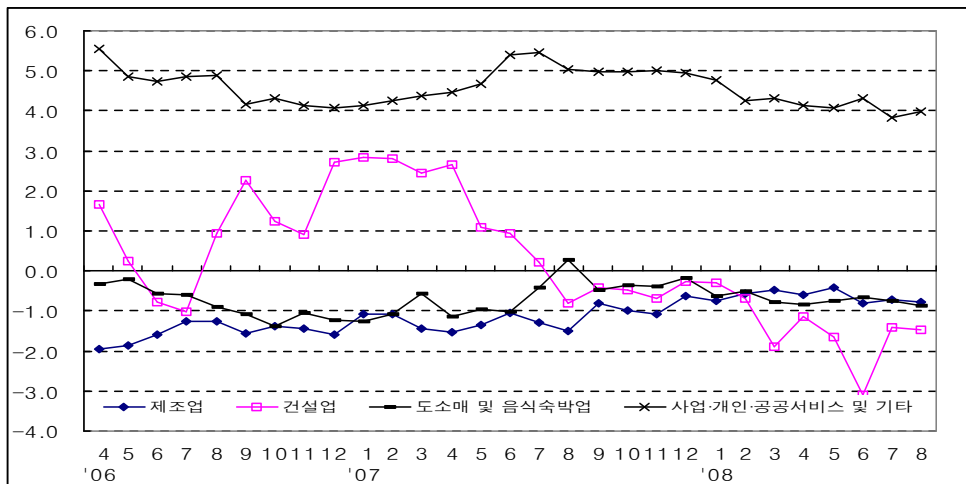
주: 1) ()안의 수치는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2)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 및 기타는 부동산 및 임대업, 사업서비스업, 공공행정,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오락·문화 및 운동관련 서비스업, 기타 공공·수리 및 서비스업, 가사서비스업, 국제 및 외국기관을 포함.

자료: 통계청, 『2008년 8월 고용동향』, 2008. 9.

〈그림 6〉 산업별 취업자 증가율

(단위: % 전년동기대비)



자료: 통계청 KOSIS.

〈표 4〉 종사상 지위별 및 취업시간대별 취업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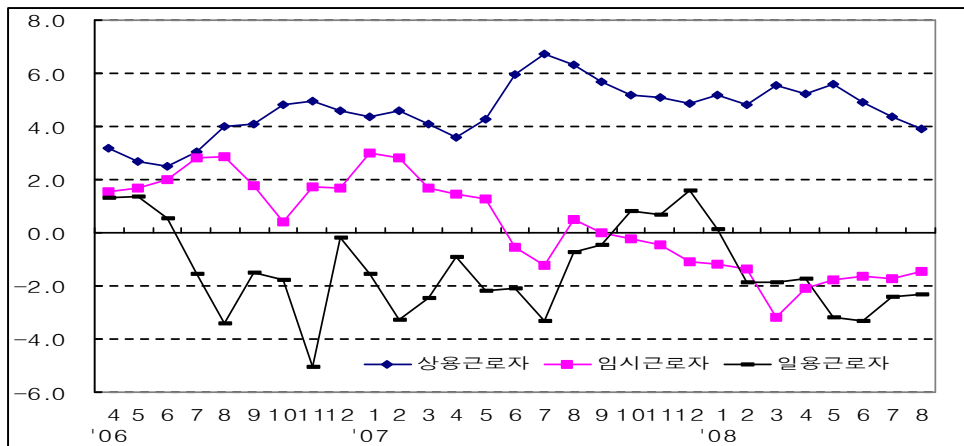
(단위:천 명, %)

	2007					2008				
	1/4분기	2/4분기	3/4분기	8월	4/4분기	1/4분기	2/4분기	3/4분기		
								7월	8월	
전 체	22,841 (1.2)	23,698 (1.2)	23,610 (1.3)	23,458 (1.3)	23,582 (1.2)	23,051 (0.9)	23,871 (0.7)	23,903 (0.6)	23,617 (0.7)	
비임금근로자	7,199 (-2.2)	7,637 (-1.1)	7,589 (-2.2)	7,575 (-3.0)	7,426 (-1.8)	7,097 (-1.4)	7,521 (-1.5)	7,540 (-1.1)	7,514 (-0.8)	
자영업주	5,895 (-1.9)	6,139 (-0.9)	6,128 (-1.3)	6,124 (-1.8)	6,035 (-1.4)	5,816 (-1.3)	6,073 (-1.1)	6,062 (-1.3)	6,035 (-1.5)	
무급가족종사자	1,304 (-3.2)	1,498 (-1.8)	1,460 (-5.9)	1,451 (-7.8)	1,391 (-3.4)	1,281 (-1.8)	1,449 (-3.3)	1,478 (-0.1)	1,478 (1.9)	
임금근로자	15,642 (2.8)	16,061 (2.4)	16,022 (3.0)	15,882 (3.5)	16,156 (2.6)	15,954 (2.0)	16,350 (1.8)	16,363 (1.5)	16,104 (1.4)	
상용근로자	8,404 (4.3)	8,533 (4.6)	8,753 (6.2)	8,763 (6.3)	8,790 (5.1)	8,839 (5.2)	8,981 (5.2)	9,054 (4.4)	9,107 (3.9)	
임시근로자	5,163 (2.5)	5,237 (0.7)	5,133 (-0.3)	5,044 (0.5)	5,156 (-0.6)	5,064 (-1.9)	5,141 (-1.8)	5,163 (-1.7)	4,970 (-1.5)	
일용근로자	2,075 (-2.4)	2,291 (-1.7)	2,135 (-1.5)	2,075 (-0.7)	2,211 (1.0)	2,051 (-1.2)	2,227 (-2.8)	2,146 (-2.4)	2,027 (-2.3)	
36시간 미만	3,014 (6.4)	2,564 (1.7)	3,962 (23.7)	4,931 (20.1)	2,549 (-5.1)	2,770 (-8.1)	3,055 (19.1)	2,760 (-36.0)	5,068 (2.8)	
36시간 이상	19,384 (0.2)	20,906 (1.1)	19,227 (-2.4)	17,841 (-3.2)	20,806 (2.2)	19,888 (2.6)	20,546 (-1.7)	20,815 (9.0)	17,784 (-0.3)	

주:()안의 수치는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자료: 통계청, 『2008년 8월 고용동향』, 2008. 9.

〈그림 7〉 임금근로자 증가율

(단위: % 전년동기대비)



자료: 통계청, KOSIS.

〈표 5〉 연령별·교육수준별 실업자 및 실업률

(단위: 천 명, %)

	2007					2008			
	1/4분기	2/4분기	3/4분기	3/4분기		1/4분기	2/4분기	3/4분기	
				8월	4/4분기			7월	8월
전 체	851(3.6)	791(3.2)	756(3.1)	756(3.1)	734(3.0)	801(3.4)	767(3.1)	769(3.1)	764(3.1)
15~29세	346(7.6)	330(7.3)	322(7.1)	302(6.7)	312(7.0)	328(7.3)	327(7.4)	334(7.4)	312(7.1)
30~39세	216(3.5)	203(3.3)	189(3.0)	199(3.2)	183(2.9)	193(3.1)	187(3.0)	183(2.9)	194(3.2)
40~49세	151(2.3)	130(1.9)	132(2.0)	143(2.2)	126(1.9)	160(2.4)	138(2.1)	135(3.0)	144(2.1)
50~59세	96(2.4)	95(2.2)	80(1.9)	79(1.9)	78(1.8)	83(2.0)	82(1.8)	90(2.0)	89(2.0)
60세 이상	42(1.7)	33(1.2)	34(1.2)	33(1.2)	35(1.3)	38(1.6)	33(1.2)	27(1.0)	24(0.9)
중졸 이하	150(2.8)	112(1.9)	105(1.9)	104(1.9)	109(2.0)	128(2.5)	120(2.2)	119(2.2)	114(2.1)
고졸	426(4.2)	379(3.7)	378(3.7)	373(3.7)	372(3.7)	402(4.0)	368(3.7)	406(4.0)	377(3.8)
대졸 이상	274(3.3)	300(3.5)	274(3.2)	280(3.3)	253(2.9)	271(3.1)	279(3.1)	245(2.7)	273(3.0)
취업 무경험 실업자	40	40	44	37	40	44	49	52	36
취업 유경험 실업자	810	751	712	719	694	757	718	718	728

주: ()안의 수치는 실업률.

자료: 통계청, 『2008년 8월 고용동향』, 2008. 9.

- 2008년 8월 중 전체 실업자 764천 명을 과거 취업경험 유무로 살펴보면 취업 무경험 실업자는 36천 명으로 전년동기대비 2천 명 감소한 반면, 취업 유경험 실업자는 728천 명으로 9천 명 증가했음.

(정성미 동향분석팀 책임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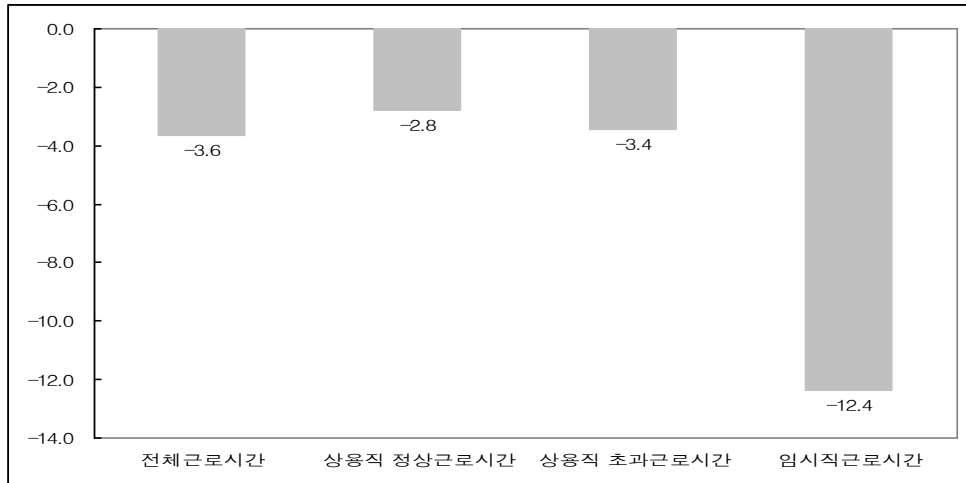
임금 및 근로시간 동향

◆ 근로시간이 감소하는 가운데 임시직 근로시간의 감소세가 두드러져

- 2008년 2/4분기 근로시간은 전년동기대비 3.6% 감소
 - 2008년 2/4분기 평균 전체 근로자의 월 근로시간은 170.2시간을 기록하여 전년동기(176.6시간)에 비해 3.6% 감소
 - 주당근로시간으로 환산하면 주당 39.2시간 기록

[그림 8] 근로시간 증가율 추이(2008년 2/4분기, 전년동기대비)

(단위: %)



자료: 노동부, 『사업체임금근로시간조사』, 2008. 2/4분기.

- 임시직의 월평균 근로시간, 전년동기대비 12.4%의 큰 감소폭 기록
 - 2008년 2/4분기 평균 임시직 근로자의 월 근로시간은 99.2시간을 기록하여 12.4%의 감소를 보였는데, 이는 상용직이 2.8% 감소한 것에 비해 매우 큰 수치임.
- ◆ 부동산 및 임대업의 근로시간이 가장 크게 감소
 - 전반적인 근로시간 감소 속에 부동산 및 임대업, 건설업 등의 감소폭이 두드러짐.
 - 2008년 2/4분기 중 부동산 및 임대업의 월평균 근로시간은 11.4%, 건설업은 7.5% 감소함으로써 전산업 평균 3.6% 감소보다 높은 수치 기록
- ◆ 전반적인 감소세 속에 5~9인 규모의 근로시간은 증가
 - 2008년 2/4분기 중 월평균 근로시간은 대규모 사업장일수록 크게 감소
 - 규모별 근로시간은 5~9인에서 2.1% 증가하였으나 10~29인 1.2%, 30~99인 3.5%, 100~299인 3.6% 감소를 비롯하여 300인 이상에서는 4.4% 감소함으로써 규모가 커질수록 감소폭이 커지는 모습을 보임.

〈표 6〉 산업별 월평균 근로시간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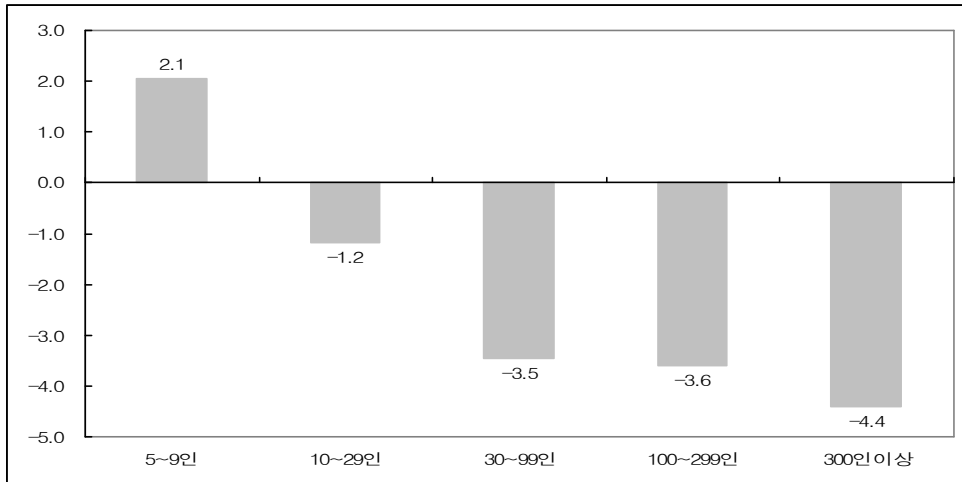
(단위 : 시간, %)

	2007. 2/4	2008. 2/4
전 산업	176.6	170.2 (-3.6)
제조업	187.9	187.5 (-0.2)
건설업	165.4	153.0 (-7.5)
도매 및 소매업	171.8	165.1(-3.9)
음식숙박업	180.8	175.3(-3.0)
운수업	185.9	181.3 (-2.5)
통신업	171.5	159.4(-7.1)
금융 및 보험업	162.5	156.0(-4.0)
부동산 및 임대업	207.3	183.6(-11.4)
사업서비스업	166.3	166.2 (-0.1)
교육서비스업	141.4	134.3(-5.0)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172.2	165.9(-3.7)
오락·문화 및 운동관련 서비스업	157.2	152.5(-3.0)
기타 공공·수리 및 개인서비스업	182.2	177.2(-2.7)

주 : 1) 전체 근로자 기준.
 2) ()안은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자료 : 노동부, 『사업체임금근로시간조사』, 각호.

〔그림 9〕 규모별 월평균 근로시간 증가율(2008년 2/4분기)

(단위 : %)



주 : 전체 근로자 기준.
 자료 : 노동부, 『사업체임금근로시간조사』, 2008. 2/4분기.

(강승복 동향분석팀 책임연구원)

노사관계 및 노동정책 동향

◆ 근로손실일수, 전년동기대비 증가세 지속

- 2008년 9월 25일 현재 노사분규 동향을 살펴보면,
 - 분규 발생건수는 91건으로 전년동기(86건)에 비해 소폭 증가하는데 그쳤지만, 근로손실일수는 747,716일로 전년동기(412,012일) 대비 81.5% 증가함.

〈표 7〉 노사분규 주요 지표 동향

(단위: 개소,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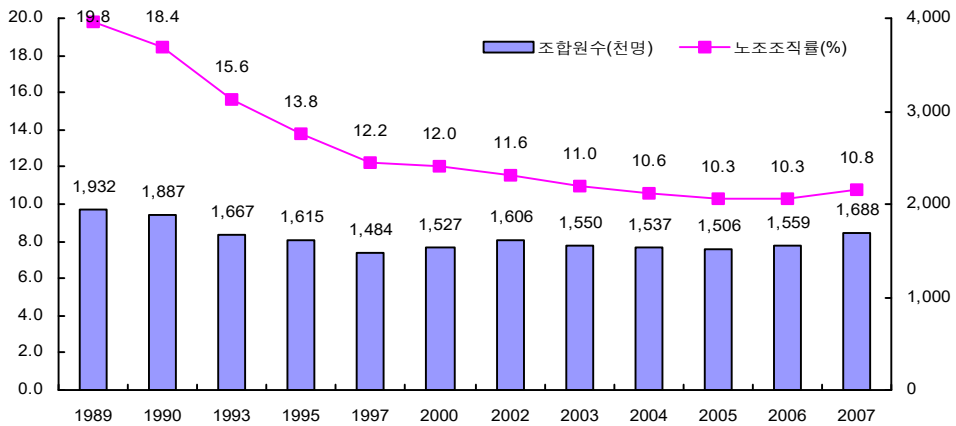
	2007. 9. 25	2008. 9. 25
노사분규 발생건수(개소)	86	91
근로손실일수(일)	412,012	747,716

주: 당해 연도의 누적치임.
자료: 노동부.

◆ 노동조합 조직률, 공무원노조 증가로 2006년에 비해 0.5%p 증가

- 2007년 노동조합 조직현황을 분석한 결과(한국노동연구원), 지난해 노동조합 조직률은 10.8%로 2006년에 비해 0.5%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 우리나라 노동조합 조직률은 1989년 19.8%를 정점으로 하락하는 추세를 보여 1997~2001년 12%대, 2002~2003년 11%, 2004년 이후 10%대로 집계되었는데, 2007년에는 공무원노조 합법화의 영향으로 전년대비 근소하게 증가한 10.8%를 기록함.
 - 노동조합수는 5,099개소로 전년보다 790개소(13.4%) 감소하였는데, 이는 기업별노조가 초기업노조(산별노조 또는 지역노조)로 전환하는 등 노동조합의 조직형태가 변경되거나 소규모 사업장의 휴·폐업 등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
 - 조합원수는 2006년보다 128,603명(8.3%) 증가한 1,688천 명으로 집계됨. 이는 공무원노조 합법화(2006. 1. 1)에 따른 공무원노조 결성이 2007년에 본격화된 데 기인함. 2007년 결성된 주요 공무원노조는 전국공무원노조(42,490명), 전국민중공무원노조(50,542명), 법원공무원노조(7,590명), 자유교원노조(5,042명) 등임.

[그림 10] 노조 조직률 및 조합원수 추이



- 노동단체별 조직현황을 살펴보면, 상급단체가 없는 미가맹 노조의 증가가 두드러짐.
 - 2007년 말 기준 노동조합수는 한국노총 2,872개소(56.3%), 미가맹 1,537개소(30.1%), 민주노총 690개소(13.6%)의 순으로, 2006년도와 비교하면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각각 557개소, 453개소가 감소한 반면, 미가맹은 220개소 증가함.
 - 조합원수는 한국노총 740,308명(43.9%), 민주노총 682,418명(40.4%), 미가맹 265,056명(15.7%)의 순으로, 2006년에 비해 한국노총은 14,926명(2.0%) 감소한 반면, 민주노총과 미가맹은 각각 55,144명(8.8%), 88,385명(50.0%) 증가함.
- 조직형태별 노동조합수를 살펴보면, 기업별노조 92.4%(4,713개소), 초기업노조(산별노조, 지역업종노조) 6.8%(345개소)로 기업별노조가 지배적이지만, 조합원수로는 초기업노조가 전체의 51.3%(865,423명)를 차지해 기업별노조의 48.7%(822,359명)를 앞서는 것으로 조사됨.
 - 초기업노조의 조합원수 증가 추세는 2003년 31.3%를 기록한 뒤 꾸준히 증가해 왔으며, 지난해에는 전체 조합원의 절반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남.
 - 상급단체별로 조직형태를 보면, 노동조합수는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모두 기업별노조가 92.9%와 86.4%로 압도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나, 조합원수 비중을 보면, 한국노총에서는 기업별노조(62.6%), 민주노총에서는 초기업노조(72.9%)가 대부분을 차지하여 큰 차이를 나타냄.

◆ 보건의료산업, 2008년도 산별중앙교섭 타결

- 보건의료산업 노사는 지난 8월 26일 12차 산별 실무교섭을 통해 2008년도 산별협약 잠정합의안을 도출
 - 병원 노사는 지난 4월 30일 상견례를 시작으로 4개월여 간 교섭을 진행해 왔으나, 사용자대표 선정 및 병원 급식 미국산 쇠고기 사용금지 등을 둘러싼 이견 차이로 교섭에 난항을 겪었음.
 - 노사간 상견례 이후 이루어진 11차례에 걸친 중앙교섭과 3차례의 실무교섭이 결렬되면서 보건의료노조가 조정신청(7월 7일)을 접수하기도 했으나,
 - 그 이후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 아래 노사간 7차례의 산별실무교섭과 특성별교섭 과정을 거치면서 2004년 이후 5년차 산별중앙교섭을 마무리짓게 됨.
- 노사간 잠정합의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우선, 임금협약을 보면 정규직 임금은 4~5% 인상하고, 비정규직은 정규직보다 높은 수준의 인상률을 적용하며, 산별 최저임금은 95만 원을 확보하는 것으로 함.
 - 또한 가장 주요한 핵심 쟁점 중의 미국산 쇠고기 사용문제와 관련해서는 환자 및 직원식에 우리쌀 사용 및 유전자 변형 없는 안전하고 신선한 농축수산물을 제공하는 데 노력하는 것으로 합의함.
 - 이밖에 인력충원, 의료기관평가제도 개선, 생리휴가 완전 유급화, 교대근무자 노동조건 개선, 교대제 개선 및 인력충원 대책 마련을 위한 조사연구, 산별 노사관계 지속적 발전 등에 잠정합의함.

〈표 8〉 보건의료산업 산별중앙교섭 타결 결과

	주요 타결 내용
산별기본협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별 노사관계 정착 노력 ■ 산별중앙노사운영협의회 설치 및 운영
보건의료협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료기관 평가제도 개선을 위해 보건복지가족부에 노사공동 TF팀 구성 제안 ■ 환자식 및 직원식에 우리쌀 사용, 유전자 변형되지 않은 농축수산물 제공 노력
고용협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접고용 비정규직의 근로조건 및 단계적 정규직화 노력 ■ 간접고용 비정규직 고용안정 보호 노력 ■ 비정규직 대책 노사특별위원회 구성·운영 ■ 현장인력 충원 논의
임금협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립대 의료원 4.2%, 민간중소병원 4.0%, 국립대병원 2.5%, 지방의료원 5% 임금인상(총액기준) ■ 비정규직 임금인상률을 정규직 인상률에 상회하도록 노력 ■ 산별 최저임금은 월평균 정액급여 950,000원과 시급 4,100원 중 높은 금액 적용 ■ 월 1회 무급생리휴가 부여(사용시 월 기본급 1/30 공제)

◆ 완성차업계 2008년도 임·단협교섭 타결

- 기아자동차 노사의 2008년 임단협교섭 타결을 끝으로 올해 국내 완성차업계의 임단협교섭이 마무리됨.
 - 지난 7월 말 쌍용차가 자동차업계 첫 임단협교섭을 타결지었고, 9월 초 GM대우, 그리고 9월 말 현대차와 기아차가 노사간 잠정합의안(2차)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가 가결되면서 교섭이 종료됨.
 - 쌍용차를 제외한 3사 모두 노사간 1차 잠정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낮은 찬성률로 부결된 바 있음.
- 현대차와 기아차의 노사간 임단협교섭 합의안을 살펴보면,
 - 두 회사 모두 기본급 8만 5천 원 인상, 성과급 300% 지급, 일시 성과급 인상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 이와 더불어 주간 연속2교대 시행시기를 명시하고 있음.

〈표 9〉 현대자동차 및 기아자동차 임단협 타결 내용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임금협상 및 단체협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급 8만 5천 원 인상(기본급 대비 5.61%) ■ 직무수당 3천 원 인상 ■ 성과급 300% 및 일시금 400만 원 지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급 8만 5천 원 인상(기본급 대비 5.61%) ■ 생계비 부족분 300% 지급 ■ 신차성공특별격려금 360만 원 지급
주간 연속 2교대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무형태 : 오전조(8H)+야간조(9H) (8+8 방식은 2013년까지 노사합의를 통해 시행) ■ 근무시간 : 오전조 06:30~15:10, 오후조 15:10~00:50 ■ 시행시기 : 2009년 1월 전주공장 시범실시 후 9월 중 전공장 실시(P/T·상시주간·일반직은 근무형태변경추진위서 방안 마련) ■ 임금체계 : 월급제 전환(10+10 기준 연간 총액임금 보장) ■ 생산량 : 현 생산량 유지(M/H개선위원회에서 세부 방안 마련) ■ 부품사 : 자동차산업 교대제 개선위원회 구성 후 방안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여금 지급률 50% 인상(700 → 750%) ■ 정년 1년 연장(58 → 59세) ■ 교대근무수당 3천 원 인상 ■ 의료비 지원한도 500만 원 인상(2,000만 원 → 2,500만 원) ■ 전직원 단체 상해보험 가입

- 현대차는 2009년 1월 전주공장을 시작으로 내년 9월 전공장에서 주간 연속2교대제를 시행하기로 합의했고, 기아차는 세부 사항에 대한 별도의 협의를 전제로 원칙적으로 내년 9월 시행에 대해 합의함.
 - 근무형태 개편에 따른 임금보전의 세부 방식과 생산량 유지 방안에 대한 노사합의는 추후 과제로 남겨져 있음.
- 주간 연속2교대제 도입은 자동차산업의 '40년 밤샘노동'을 없애는 기폭제로 작동하면서 향후 동종업계의 지형 변화가 주목됨.
 - 근무제도 변경 및 임금체계 개편을 위한 자체 여력이 부족한 협력업체 및 부품사의 경우 완성차업체의 물량 변동에 의해 큰 영향을 입을 것으로 예상됨.

◆ 뉴코아 노사분규 타결

- 2007년 6월 23일 비정규직법 시행을 앞두고 전면파업에 들어갔던 뉴코아 노조가 2008년 8월 29일 조합원 총회를 거쳐 사측과 조인식을 실시함에 따라 파업 434일 만에 합의에 이룸.
 - 합의문에 따르면 뉴코아 노사는 ▲ 지난해 6월 계약기간이 만료된 비정규직 36명에 대한 (신규)재고용 외에 ▲ 고객만족 격려수당 변경, ▲ 자녀학습 보조비 지급, ▲ 임신 여직원 수당 지급 및 고정연장 근로제외 등 모성보호와 복리후생 증진 조항 등에 합의함. 또한 합의문과 함께 '뉴코아 노사화합 공동선언문'을 발표하여 2010년까지 무파업을 선언함.
 - 최초 쟁점이 되었던 계산직 노동자의 외주화 문제는 노조가 외주화 금지 주장을 철회하고, 외주화를 회사의 권리임을 인정하되 실행에 있어서 노조와의 협의를 거치는 것으로 마무리됨.
- 한편 노동쟁의 과정에서 징계해고된 노조 지도부 18명에 대한 복직과 노동조합과 조합원, 연대단체를 상대로 제기된 손해배상청구 및 가압류를 둘러싸고 노사가 이면합 의서를 작성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이를 둘러싼 논란이 일어남.
 - 해고된 노조 지도부 18명은 복직을 포기하고 3개월분의 임금을 받는 대신 회사는 손해배상청구를 취하하기로 함. 복직 포기의 경우 노조 지도부가 스스로 사직서를 작성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부당해고 소송 가능성이 원천 차단되었으며, 손해배상청구 또한 조합원 개인에 대한 것만 취하하기로 해 노동조합 및 연대단체에 대한 것은 여전히 유효한 것으로 알려짐.

- 뉴코아 노사합의가 비정규직 계약해지 및 외주화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는 이랜드, 코스콤, 기륭전자 등의 분쟁해결에 향후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가 주목됨.

◆ 임금피크제 보전수당 상시화

- 노동부는 9월 9일 임금피크제 보전수당 상시화를 골자로 하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힘.
 - 임금피크제 보전수당제도는 노사합의를 통해 56세 이상 연령까지 고용을 보장하는 대신 임금을 10% 이상 삭감하는 경우 그 각인 임금의 절반을 연 600만 원 한도에서 지원하는 것으로서,
 - 외환위기 이후 고용불안이 커지면서 고용의 안정성과 임금의 유연성을 조화시킬 수 있는 ‘임금피크제’가 점차 확산되는 상황을 반영해 정부가 이를 지원하기 위해 2006년부터 3년간 한시사업으로 시행해 오고 있음.
- 노동부가 이처럼 임금피크제 보전수당을 상시적인 제도로 전환하기로 결정한 것은 노동인구의 고령화와 임금체계의 유연화의 필요성이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는 정책적 판단에 따른 것임. **KLI**

(강병식 노사관계연구실 전문위원)